

한화그룹, 태양광을 미래사업으로

김승연 회장, 창립 59주년 맞아 강조 ... 바이오도 성장동력 육성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0월9일 창립 59주년 및 취임 30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에게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연 회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2012년이면 환갑 나이가 된다”며 “한화그룹이 100년 기업의 영속적인 미래를 도모하려면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층 간의 동반성장이 사회적인 화두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화그룹 또한 자발적으로 동참해 나가자는 다짐”며 “지금까지는 치열한 생존경쟁에 쫓겨 앞만 보고 달려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옆도 챙기고 뒤도 돌아보면서 함께 발맞춰 나가자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최근 발표한 <공생발전 7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대기업형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중소기업형 사업에서는 철하며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재단 설립, 친환경 사회공헌사업, 성과공유제 도입 등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연 회장은 “태양광,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룹의 새 역사를 이끌 소중한 토대로 키워가야 한다”면서 “특히, 태양광 사업을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할 또 하나의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10월8일 밤 한화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세계불꽃축제 때 한강 유람선에 근속 30년을 맞은 직원 부부 100쌍을 초대해 근속 메달과 상장, 부부동반 해외여행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0>